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고향인 이곳 부산에서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지난 두 차례 모스크바 방문에서 베풀어 주신 환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차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각별합니다.

세계는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하의 취임 이후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만 해도 지난해 31%나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각하의 높은 신망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러시아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과 러시아는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역과 투자는

물론 에너지·자원 협력과 철도 연결사업, 우주과학기술 협력과 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목표도 일치합니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합의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두 나라의 협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역액이 34% 증가했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결된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은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푸틴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러시아의 발전, 그리고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